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0호 【루계 제2233호】

주체102(2013). 7 20 토요일 음력 6. 13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규모있게 일떠선 버섯재배장들이 멋쟁이라고, 볼수록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에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버섯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을 늘이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특히 불과 몇개월사이에 생산면적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버섯생산을 집약화할수 있게 최신기술을 받아들인 실내재배장을 건식공법으로 일떠세운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실내재배장의 한해 버섯생산량을 물어주시고 궁륭식으로 된 버섯재배장과는 달리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일년 내내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작은 부지면적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종합지휘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 재배실들에서 자라는 버섯들의 생육상태를 콤퓨터로 실시간감시하며 생산지휘를 할수 있게 감시조종체계를 자동화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균배양장을 돌아보시며 버섯재배에서 중요한것은 균생산이라고 하시면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균들을 길러내야 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버섯재배실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층층이 높은 다락에 쌓아놓은 종균봉지마다에서 돋아난 팔뚝같은 흰곤봉버섯들을 보시며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궁륭식버섯재배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원가를 줄이면서도 적은 로력으로 버섯생산량을 늘이자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면적을 최대한 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버섯공장에서 궁륭식버섯재배장과 건식공법으로 건설한 실내재배장을 배합하여 버섯을 생산하고있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시범으로 하여 군대와 사회에서 버섯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계실과 보이라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지고 온습도보장대책을 세운것이 좋다고 하시였고 기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는 버섯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기질생산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버섯공장들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표준설계를 내려보내주고 버섯재배기술과 경험을 보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공장의 종업원들이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7월 16일 새로 건설하고있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아동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군부대지휘관들로부터 건설진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현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하고 건설을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구강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강병원건설 추진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구강병원건설에 헌신적인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건설을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신 후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건설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을 시위하고 당의 보건정책을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꾸리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건설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치는것과 함께 병원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드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병원으로 되게 하자면 병원들에 필요한 다목적렌트겐과 CT, 구강종합치료기 등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건성과 해당 부문 일군들이 건설현장에 자주 나와보면서 어떤 의료설비들과 비품들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앞으로 병원운영과 관리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병원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병의 예방과 진단치료 및 건강증진에 쓰이는 설비들은 물론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품들도 잘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의료설비와 입원실마다에 놓을 TV와 랭동기 등을 당에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당에서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게 될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당창건기념일까지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건설장의 험한 길을 다녀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눈물속에 바래우며 건설자들은 목메여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격정을 터치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건설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승 60돐경축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전승 60돐경축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15일 함흥에서 있었다.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광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함흥시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병식 체육성 부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함경남도와 강원도사이의 축구경기가 있었다.

대회기간 평양과 함흥 등지에서 축구, 롱구, 배구, 탁구, 권투, 력기, 유술, 륙상, 지상호케이를 비롯한 1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새롭게 꾸려진 신의주시의 공원들

신의주시에서 공원들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민속, 백운, 동하, 남상공원 등에 배구, 롱구, 정구, 로라스케트장과 여러가지 형식의 휴식장소, 청량음료매대가 새로 꾸려짐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보다 좋은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와 신의주시에서는 시내 공원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인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공원들을 꾸릴 일념안고 떨쳐나섰다.

도인민위원회, 도검찰소, 신의주방적기계공장에서는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립체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내밀어 맡은 과제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신의주구두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종업원들은 선행공정들을 추진시키며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원들에 여러 경기장들과 화대들이 건설되고 운동기구들이 갖추어졌으며 휴식장소들이 특색있게 꾸려졌다.

도인민보안국, 시인민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세멘트, 혼석 등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였다.

시안의 녀맹원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동물조각, 지피식물심기, 색보도블로크깔기, 지대정리를 비롯하여 공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도와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압록강유원지공사를 적극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단천제련소에서 전기아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인류공동의 명절로 경축될 7월의 대축전

전승 60돐경축준비위원회 6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결성

세계반제반미투쟁사에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7월의 전승절을 우리 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가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지난 3월 1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6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경축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네팔, 파키스탄, 베닌, 로므니아, 나이제리아, 단마르크에서는 전국적범위의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로씨야에서는 각계 인사들을 망라한 사회계준비위원회에 이어 나호드까시, 조선전쟁로병리사회,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우크라이나공산당,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베닌사회주의당, 로므니아사회주의당,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민주꽁고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진보적정당 당수들이 결성식들에 참가하였다.

우간다대통령부 국장,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위원장, 뽈스까조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에꽈도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정당, 단체와 지역기구의 저명한 인사들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결성식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가 가지는 의의가 강조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날 반제투쟁의 앞장에서 굴함없이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 필리핀준비위원회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평양에서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평화대행진을 비롯한 다채로운 련대성활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네팔전국위원회는 7.27에 즈음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의 주최로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된 국제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는 올해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 동맹자들을 비롯한 전범자들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투쟁을 벌릴것을 결정하였다.

준비위원회들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대조선압살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걸음마다 짓부셔나가는 조선인민의 승리의 7.27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국, 로씨야, 네팔, 뻬루,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들과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서 집회, 업적토론회, 좌담회,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각종 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고있다.

행사장들에서는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췰란드 반제연단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김일성주석의 빛나는 전승업적이 있기에 조선인민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7월 27일은 진정 자주성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류공동의 명절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여온 조선인민은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여 백승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반제반미투쟁사에 승리만을 아로새기신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에 떠받들려 선군조선의 뜻깊은 7.27은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될것이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개성공업지구문제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차수를 거듭하면서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평하고있는것처럼 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대범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반면에 남조선당국은 대결관점에서 대화에 림하고있다.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수 있도록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국제적규범》을 전면에 내세운것이 그것이다.

개성공업지구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6.15자주통일시대를 통하여 안아온 민족공동의 귀중한 성과물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이 걸려있는 공업지구문제를 민족모두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것은 또한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6.15시대의 산체험을 통하여 찾은 진리이기도 하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근본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호상 존중과 신뢰의 관계에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해결하였다. 그 과정에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창설과 같은 6.15시대의 소중한 결실들을 마련할수 있었다. 최전연지대이고 북과 남의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하고있어 순간의 불찰이 예측할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수 있는 군사적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금강산과 개성에서 가시철조망과 지뢰가 걷히고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여 남녘동포들이 줄지어 찾아와 관광을 하고 기업도 운영하게 된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이 모든것은 그 무슨 《국제적규범》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안아온것이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어떤 문제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고 모든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간다면 해결 못할 리유가 없다.

우리 민족에게는 북과 남이 합의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현 북남관계의 시금석으로 되고있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의 유일한 방도는 북남공동선언들에 밝혀진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충실하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개성공업지구해법은 6.15, 10.4선언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신뢰는 어느 일방의 《기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북남대화를 정략적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하면서 《신뢰》를 운운하는것은 위선이다.

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윤현주

전승의 기적을 안아온 탁월한 령도

7.27!

승자의 영예와 존엄, 패자의 치욕과 수치를 다시 보게 되는 날이다. 60년전 공화국은 반미대전에서의 력사적인 승리를 선언했고 미국은 패전을 인정했다. 바로 그날 정전협정조인후 59분만에 백악관에서 방송으로 《대가는 너무 컸다. 이것은 참으로 쓰라린 비극이다.》라고 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외마디소리가 전세계를 향해 전파됐다.

청소한 공화국을 일방으로 하고 114차례의 전쟁에서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한편으로 한 조선전쟁은 량자간의 힘이 너무도 엄청나게 짝이 기운 대결이였다. 최신장비로 무장한 미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15개 추종국가무력과 남조선군을 포함한 200여만명의 대군이 투입된 조선전쟁은 말그대로 병력수나 화력기재의 밀도와 격렬성에 있어서 세계전쟁사에 보기 드문 전쟁이였다.

72시간내에 조선전쟁은 결속될것이라는것이 미국의 호언장담이였고 북조선에는 쓸어도 거칠것이 없게 해서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것이 지배와 침략을 국책으로 삼아온 제국주의우두머리의 폭언이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미국은 무려 3년간에 걸쳐 헤여날수 없는 깊숙한 전장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령토상으로나 인구수로나 그리고 군사기술적으로 렬세하다던 조선인민앞에서 침략세력은 156만 7 120여명에 달하는 병력이 살상포로당하고 1만 2 220여대의 비행기를 비롯한 수천수만의 땅크, 장갑차, 함선, 포를 비롯한 막대한 군사기술기재와 장비를 완전히 잃거나 격파, 격상당했다.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날려버리고 트루맨, 아이젠하워, 처칠, 이든, 맥아더, 테일러, 클라크를 비롯한 한다 하는 거물들과 전쟁상인, 살인장군들을 몰락케 한 조선의 전승신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것이였다.

위인은 시대가 알고 력사가 기록한다.

김일성주석은 천재적군사사상과 비범한 전략과 전술, 무비의 담력과 지략,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20세기의 전설적명장, 희세의 령장이시다. 평양주재 쏘련의 《쁘라우다》특파원으로서 전승의 그날 조선정전협정문을 비준하시는 주석의 모습을 촬영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후에도 여러차례 주석을 만나뵈온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는 **김일성**주석은 전생애에 걸쳐 모든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력사에 유일한 승리자이시였고 영원불멸할 정의의 화신이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전승혁명사적관에서—

패전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은 미국은 돌아앉자부터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외우며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했다. 정전후 오늘에 이르는 조선반도의 60년은 사실상 포성없는 조미대결전의 날과 달의 련속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 대결마다에서 승자는 언제나 조선이였다. 출중한 령장의 자질과 비범한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위업에 공헌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에 대해 국제 **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사회정치학박사 비슈와나스는 아메리카제국이 조선반도에서 총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개시나 세계대열핵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전쟁이 몰아오는 피해가 전지구적인 피해로 될것이다, 세계적인 령장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을 군사대국으로 만드시여 그 모든 재앙을 막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분은 조미대결전을 백승에로 이끄시여 세계 200여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주고 수십억 인류에게 평화의 푸른 하늘을 주신 대성인이시라고 격찬했다.

희세의 명장들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위업과 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의 전승신화, 련승기적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외세의 그 어떤 도전과 간섭에도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며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조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것은 조선의 립장이고 결심이다. 최후의 판가리성전에서 잃을것은 군사분계선뿐이고 얻을것은 조국통일과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라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인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전시에 이루어진 인민적시책

이 땅에서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련이어 취해지던 인민적시책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전선의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였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격전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그이께서는 전선과 후방에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싸우고있는 인민들에게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건사업을 위한 자금보장, 물질적보장사업 등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41(1952)년 10월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였고 그해 11월에는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가 발표되였으며 그 다음해 1월부터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수령님의 그 사랑의 손길아래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파괴된 정휴양소들을 복구하여 근로자들의 정휴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취해져 그 다음해에는 전해에 비해 정휴양생수가 7.5배로 늘어났으며 인민군전사들을 위한 화선휴양소가 생겨나게 되였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가족들에게 식량공급량을 늘일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된것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많은 생활필수품들이 인민들에게 공급되였다. 국가정기보조금에 관한 내각결정,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식량이 부족한 빈농민들에게 1952년도 농업현물세와 국가대여곡 등을 면제할데 관한 내각결정, 빈농민 및 령세어민들의 경제형편개선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등의 인민적시책들이 련이어 실시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에게 참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주체39(1950)년 7월 남반부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된데 이어 8월에는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다. 다음해 1월에는 서울시에 전기를 보내는 대책을 세울데 대한 조치도 취해졌다.

최고사령부에서 경공업전람회가 진행되고 이를 계기로 경공업과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전선에는 한알의 총알, 한발의 포탄도 귀하였지만 군수품이 아닌 학생들의 교과서가 군용차에 실려 수송되고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을 교정으로 부르는 전쟁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졌다.

미군의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하여 평화적도시와 농촌은 무참히 파괴되고 황폐화되였어도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생명의 젖줄기로 하여 사람들은 포화속에서도 불비속에서도 생명의 터전을 지켜싸웠으며 조국건설의 봄싹들을 마련해나갔다.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오늘도 공화국에서 련면히 이어지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적뉴대의 전통과 깊은 뿌리에 대하여 시사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강국의 꿈과 현실

이 땅에 전승의 력사가 흐르는 7월이다.

세대가 바뀌고 산천은 변했지만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60년전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더해만가는 속에 조국인민들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울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국가,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그날을 조국땅우에 현실로 펼치려는것이 바로 이 나라 인민의 꿈이고 리상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풍요로운 땅에서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념원하여왔다.

인민의 오랜 념원을 헤아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화와 같은 인민애를 지니시고 동서해의 외진 섬초소들로부터 공장과 연구소, 야영소와 유치원, 근로자들의 새집들에 이르기까지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병사들과 인민들, 학생소년들과 하나로 어울려 뜨거운 사랑과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며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고 인민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에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군 하신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정월 초하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심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자신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이의 조국수호의 전선시찰길은 판문점과 초도, 철령과 오성산, 무도와 장재도를 비롯한 최전연고지들과 최전방초소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 위치한 까칠봉초소를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곳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며 최고사령관이 늘 함께 있다고 하시며 초소군인들에게 조국수호정신과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횡무진하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필승의 지략과 전법을 가르쳐주시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그이의 전선시찰이 있어 오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낸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실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인민생활향상과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하늘을 나는 기적이 창조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을 더 빨리 이룩할수 있게 하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전에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해주시였다. 얼마전 장자강공작기계공장 무인화직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최첨단돌파사상이 구현되고 함축된 표본직장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자는것이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시였다.

하루빨리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조국땅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있다.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세포등판지구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뿐만아니라 평양시가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려지고있으며 창성의 모범을 따라 모든 지방들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인민을 기어이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우실 확고한 결심을 안으시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민족의 존엄 더욱 빛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전포성을 울릴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증견자의 추억

전쟁참가자들을 만나려던 나는 은연중 《판문점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게 됐다. 다리품을 팔지 않고도 전쟁의 생동한 현장, 그중에서도 7.27의 그날을 방불히 볼수 있어 나는 무등 기뻤다. 필자 서대현은 전쟁기간 군사정전담판에 관여한 사람이였다. 그래서 나는 필자의 회고담을 통해 7.27, 그날을 보게 됐다.

…1953년 여름이였다. 조선전선에서 패전만을 거듭한 미국은 정세를 호전시켜보려고 《아이젠하워신공세》를 고안해냈다. 그러나 아무리 로회한 책략가들이 만든 작전안도 인민군대의 타격권안에서 초전박산나고말았고 미군의 파멸적인 운명에 대해 일본의 한 출판물은 《이제는 전속력으로 조인을 향해 돌진하는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사실을 까밝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취하신 강력한 반타격전세례를 면치 못하게 되고 《영예로운 정전》을 추구할수 없게 된 침략자들은 끝내 정전담판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7월 어느날 정전담판 제58차 본회담이 있었고 조선측 대표가 10개 조항으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뒤이어 쌍방련락군관들이 조인식장을 돌아보며 료해했다.

마침내 **김일성**주석께서 조인식날자로 찍으신 27일이 왔다. 그날은 이따금 센 바람이 부는 흐릿한 날이였다. 회의장주변의 풀밭에 피여난 이름모를 꽃잎엔 이슬방울이 맺혀있었고 조인식장을 꾸리면서 갓 떠다 심은 잔디도 새파란 잎새를 빳빳이 쳐들고있었다. 일찍 잠을 깬 잠자리들이 분주히 날아다녔다.

정각 10시 쌍방대표들이 조인식장에 입장했다. 20여명의 쌍방기자들도 들어섰다. 조선어와 영어로 된 두 통의 협정문이 공화국측 대표와 상대측 대표앞에 놓여졌는데 해리슨은 떨리는 손으로 펜끝에 먹을 묻혀 문건에 수표를 했다. 조인식이 끝난 후 공화국측 수석대표는 기자들의 취재에 쾌히 응했고 해리슨은 귀찮다는듯 한손을 홱 내젓고는 일언반구없이 직승기를 타고 사라졌다.

공화국측 수석대표와 기자들의 문답이 이어졌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당신은 그 승리의 요인을 어떻게 보는가?》

《한두마디로 대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우리가 결코 병력이나 무장장비의 우세로 승리를 거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 인민과 같이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는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판문점회의장을 떠나 개성에 도착한 필자를 비롯한 조인식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보내신 축하전문을 받게 됐다.

이튿날 평양에서는 전승을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그러나 워싱톤과 서울에서는 패전의 쓰디쓴 한숨소리와 수치감의 저기압이 무겁게 배회하고있었다.

당시 정전협정에 조인하고 귀가하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를 맞이한 그의 모친은 아들의 그 당당한 그 기세도 위풍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두줄기의 눈물이 흘렀다고 한탄했다. 클라크자신은 후날 나는 정부의 지령을 수행함으로써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패전장군이라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불명예를 얻게 되였다고 고백했다.…

승자의 존엄이 있고 패자의 수치가 있는 《판문점의 진실》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력사의 산 현실 7.27을 보며 사람들은 승리는 언제나 자주적운명을 지켜선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는것을 다시금 철리로 깨닫고있다.

아울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판문점이 통일의 상징으로 될 승리의 확신을 가다듬게 되는것이 책갈피를 덮는 나의 소감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리설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는 조국땅우에 《마식령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래쳐 이르는 곳마다에서 비약의 단계들에 굵직한 획을 긋는 국면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이께서는 지난 5월 멀고 험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이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마식령이라고 불리우는 산발들에 초급스키주로, 중급스키주로, 고급스키주로들을 닦아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의 모습은 눈보라 세찬 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새로운 희천속도를 창조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멀고 험한 건설장들에 남먼저 찾아가는것이 이제는 습관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아직은 설계도면밖에 없고 착공의 첫삽도 박지 않은 희천건설장을 찾으시여 희천의 기상, 희천의 속도를 창조하도록 크나큰 힘과 고무를 주시였다.

이제 여기에 물이 차면 누구도 이곳을 다시 볼수 없을것이라고, 그때에는 우리 병사들이 여기에 어떤 피와 땀을 묻었는지 알수도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왔다고 하시던 장군님.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은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높이 떨칠것이라고, 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에게 희천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신 장군님이시다.

건설자들은 준비작업만 하여도 몇년이 잘 걸린다는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당해치기라는 새로운 건설언어를 창조하며 짧은 기간에 건설을 완공하여 희천기적을 창조하였다.

희천의 그 정신, 그 기상이 빛발치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글발에서 건설자들의 애국의 일념을 읽으시고 그 구호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온 나라가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말씀 오늘도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계획대로 진척시킨 군인들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세월의 뒤를 따르지 말고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줄데 대한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어린 호소문을 보내시였다.

거세차게 타번지는 불길도 한점의 불꽃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온 나라에 《마식령속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것은 원수님의 가슴속에 불타고있는 뜨거운 인민사랑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지금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창조되고있는 《마식령속도》는 강성국가건설의 시간표이며 오늘의 총공격전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공법, 새로운 리정표를 제시해주고있다.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늠할수도 없고 예측할수도 없는것이 마식령뿐아니라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보게 되는 공화국의 강력한 군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인것이다.

온 나라가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화답해나섰다. 마식령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되고 수수천년 잠자던 세포등판우에 축산을 위한 무연한 풀판이 생겨나는 기적이 창조되는 속에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게 될 공장들이 꾸려지고 아름다운 야경속에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랑만의 웃음바다가 평양의 릉라도 밤하늘가를 뒤흔들고있다. 희천속도로 강성국가건설의 진군길을 열어가던 그때처럼 그 기상, 그 본때로 마식령스키장건설속도를 따라 온 나라가 힘차게 내달리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애국충정에 떠받들려 인민이 복락을 누리는 천하제일강국, 강성국가의 희망찬 앞날은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손송죽

겨레가 지켜본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당국실무회담이 진행되고있다. 이 회담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6.15의 옥동자》이며 북남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정상화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활적문제가 론의되는 회담이 여러번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있다.

오늘날 개성공업지구문제는 말그대로 현 북남관계의 시금석이다.

남조선 전 《정권》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파국의 위기에 처한 지금의 북남관계가 개성공업지구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관계로 나아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또한 이 회담에서 남조선의 기업가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합의가 이룩되면 전반적북남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쌍방이 진심으로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실현하려는 옳바른 립장에 서서 성의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이 취하고있는 태도는 회담에 림하는 그들의 진짜속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확고한 재발방지약속과 조건이 마련되여야 재가동할수 있다.》, 《재발방지가 선결과제이고 절대적조건》이라고 하면서 공업지구의 《국제화 우선추진》이 《재발방지책》이고 《발전적정상화를 위한 조건》이라는 소리를 하고있다.

공업지구를 정상화하자면 이번 사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것부터 바로 찾고 가장 적중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명백한것은 문제의 근원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인식과 부당한 태도에 있다는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확대발전을 음으로양으로 가로막으면서 그 누구의 《돈줄》, 《딸라박스》 등으로 모독하였는가 하면 《인질구출》이니 뭐니 하면서 북침전쟁도발의 불씨로까지 써먹으려고 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대결책동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개성공업지구를 북남대결에 악용하려 한 남조선당국의 불순한 기도와 악랄한 중상모독이 없었다면 공업지구사업이 중단되는것과 같은 사태는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사태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업지구파행을 빚어낸 책임이 있는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도리어 그 누구의 《책임》과 《재발방지》만을 운운하고있는것이야말로 꼴불견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방지책》으로 들고나온 《개성공단국제화》라는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개성공업지구에 외국기업들이 없거나 국제규범에 준하는 그 어떤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난 17일에 있은 4차회담에서도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등 중단사태재발방지문제, 공업지구의 안정적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장치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문제, 통행, 통신, 통관문제, 공업지구를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성의있는 실천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남측은 공업지구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심히 불손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면 협의의 기초로 되는 합의서초안조차 준비해오지 않았다.

저들의 책임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한사코 상대방을 물고늘어지려는 그릇된 대화자세와 불성실한 태도로는 언제 가도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는 이미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합의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다 밝혀져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가 바라는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4차 북남당국실무회담 진행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4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17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등 중단사태재발방지문제, 공업지구의 안정적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장치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문제, 통행, 통신, 통관문제, 공업지구를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성의있는 실천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남측은 공업지구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심히 불손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

남측은 말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자는 립장이라고 하면서도 협의의 기초로 되는 합의서초안조차 준비해오지 않음으로써 회담을 공존시키면서 회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하였다.

북측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부당한 주장과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회담은 결실없이 끝났다.

제5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은 7월 2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문제해결에 장애만을 덧쌓는다

최근 개성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개문제와 관련한 북남사이의 실무회담이 진행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번 회담을 통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개성공업지구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있다. 여기에는 개성공업지구를 민족의 소중한 자산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민족화합과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과 지향이 깔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겨레의 지향과 민심에 역행하여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국민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의 일부 보수언론들이 심술을 부리고있다.

그들이 공업지구의 재개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중상질을 일삼는가 하면 지어 《모든걸 각오하고 북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니,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니 뭐니 하며 공업지구의 정상화문제에 제동을 걸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애당초 민족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되여온 개성공업지구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보수언론들이다.

돌이켜보건대 북과 남에 전쟁접경의 첨예한 군사적대치국면이 조성되고있던 지난 3월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정세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그 무슨 《돈줄》이니, 《밥줄》이니 하며 《북이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않는건 개성공단이 외화벌이창구이기때문》으로 보인다고 여론을 내돌린것도 《국민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였다.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역시 보수언론들은 《개성공단 로동인력 5만여명은 북한의 특수부대》라느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는 주장들을 펴면서 개성공업지구폐쇄에로 여론을 몰아갔다.

진리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여야 할 언론의 이 황당한 론리에 남조선민심이 분노한것은 물론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관련 기업가가 나서서 남의 보수언론들이 《돈때문에 북이 개성공단문을 못 닫는다.》고 보도하는건 오히려 《개성공단문을 닫으라.》고 하는것밖에 안된다고 저주하였겠는가.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보수언론들이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이 중단된 후 이로 인해 겪는 남측기업인들의 피해와 고충이 날로 커가고있는 지금에 와서까지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개성공업지구를 더욱더 폐쇄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지난 6월 개성공업지구문제와 관련한 북과 남의 당국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자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제꺽 입을 모아 《급해난건 〈돈줄〉이 절실한 북한》이라느니, 《북측이 원하는것은 〈돈줄찾기〉이며 남측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측이 신뢰구축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차원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느니 하며 동족을 극도로 자극하고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성공업지구사태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가려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책동은 언론인으로서의 자기의 진정한 사명을 망각한 사이비언론으로서의 추태이고 뿌리깊은 동족대결의식의 산물이다.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동족대결의식에 물젖어 회담의 진행에 갖은 훼방을 놀수록 얻을것은 력사와 민족앞에 남기는 씻을수 없는 죄악과 겨레의 저주뿐이다.

차금철

《5.24조치》는 반통일대결조치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악명높은 《5.24조치》를 철회할데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개성공업지구관련 기업인들은 《〈정부〉가 후속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 국제화문제를 제기한》것에 대해 《〈5.24조치〉철회가 곧 국제화》라고 주장해나섰다.

그들은 《투자를 막은것은 〈정부〉의 〈5.24조치〉》라면서 《국제적기준과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이야기하는데 지난 3년동안 개성공단은 어떤 설비투자도 없었다. 벽돌 한장 못 갖고 들어왔다. 어떻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수 있느냐.》며 《정부》에 《5.24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해나섰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은 저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5.24조치》에 대해 마치도 《〈천안〉호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와 향후 동일사태의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인듯이 광고해왔다.

이것은 저들의 반통일죄악을 가리우고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기 위한 뻔뻔스러운 궤변이였다.

리명박《정권》의 죄악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5.24조치》가 결코 어느 한순간의 우발적인 사건으로부터 생겨난것이 아님을 알수 있게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체질화된 리명박《정권》은 집권한 첫시기부터 민족공동의 소중한 재부인 6.15시대의 고귀한 성과물들을 짓밟아버리기 위해 광분하였다.

6.15공동선언을 《용공리적문서》, 10.4선언을 《부도날수밖에 없는 약속어음》,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배타적민족주의》로 헐뜯고 모독하였으며 북남사이의 모든 교류협력사업마저 차단하는 길에 들어섰다.

또한 남조선의 북남경제협력관련기업들을 박해하였으며 그들을 파산과 궁지에 몰아넣었다.

당국간 교류는 물론이고 민간사이의 교류와 협력마저 사사건건 방해하여오던 남조선당국은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2010년 5월 24일 북남사이의 모든 인적 및 물적교류와 협력을 전면차단하는 이른바 《5.24조치》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남조선민심이 오늘도 진상을 철저히 밝힐것을 요구하는 《천안》호사건은 철두철미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기 위해 리명박《정권》이 고안해낸 자작극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악명높은 《5.24조치》라는것을 고안해냈다.

리명박《정권》이 《매해 3억US$의 벌금》이니, 《시간은 북의 편이 아니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발효시킨 《5.24조치》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달가와하지 않는 그들이 발족 첫날부터 실시해온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의 연장이였고 또 하나의 악명높은 반통일조치였다.

그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 진짜목적이 북남관계를 완전 결딴내고 어리석은 《체제통일》을 이루어보려는것이였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북남사이에 문을 닫아매고 《기다리는 전략》이라는것을 써왔으며 《5.24조치》라는 극악한 북남관계차단조치도 꾸며낸것이다.

이 《조치》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는 헤여날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였으며 남조선의 북남경제협력관련기업들은 천문학적액수의 피해를 입게 되였다. 《5.24조치》라는것을 조작해낸 리명박《정권》은 대화도, 통일도 부정하는 반통일《정권》으로 내외의 규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새로 등장한 보수당국은 선임자들의 전철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까지도 《5.24조치》를 고집해나서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선임자들이 고안해낸 악명높은 북남차단조치이며 반통일대결조치인 《5.24조치》를 철회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으려는 폭압조치

14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이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며 사법당국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해나선 한 주민에게 형벌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가하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이 공화국을 찬양하였다는 리유로 《보안법》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운수업자에 대한 항소심을 벌려놓고 항소를 기각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김일성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재판부의 처사에 분노를 터뜨렸다.

질겁해난 남조선당국은 그를 구속하고 이번에 그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았다.

그리고 인터네트에 《리적표현물》을 계획적으로 올리며 북을 찬양하였다는 혐의까지 씌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열기와 련북통일기운을 어떻게 하나 억눌러보려고 파쑈적폭압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대결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오만한 언동

얼마전 남조선의 이전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어느 한 방송프로에 출연해 《북은 남북대화를 하나의 대남심리전으로 생각한적이 많다.》느니, 《북이 대화에 나서는 의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느니 하고 횡설수설했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자기의 죄많은 과거를 감싸며 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오만한 언동이다.

류명환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동족대결의 앞장에서 제일 발악적으로 날뛴 악질대결분자이다. 류명환은 시대와 민족앞에 저지른 반민족적, 반통일적죄악으로 하여 이미 《경인4적》의 하나로까지 락인찍혔다.

사실 《대북심리모략전》 등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사상 류례가 없는 파국에로 몰아넣은것이 리명박《정권》과 그 패당이다.

리명박일당은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사상과 체제를 헐뜯는 불순한 내용의 삐라살포와 《대북방송》을 비롯한 심리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그런가하면 인권과 종교의 탈을 쓴 거간군들을 동원하여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공화국의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내몰았다.

그 무슨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고 반공화국대결의 길로 질주해온 리명박《정권》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자체가 진행된적이 한번도 없다.

특히 류명환은 《순수한 북남관계란 있을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북남관계를 전면봉쇄하기 위한 동족대결책동의 앞장에서 길길이 광분해왔다.

그는 침략적인 외세를 하내비로 섬기면서 북남관계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종속물로 섬겨바쳤으며 동족압살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분주탕을 피워대며 돌아쳤다. 류명환이 2008년에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상회의때 의장성명에 포함되였던 력사적인 10.4선언을 지지하는 문구를 빼버리고 금강산관광객사망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앙탈질하다 개코망신을 당한 비렬한 범죄행위는 지금도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치졸했으면 당시 세계여론이 《지는 해를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조소해나섰겠는가.

문제는 남조선의 현 《정권》하에서도 동족대결책동이 의연 계속되고있다는데 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이 공화국의 나어린 청소년들을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다가 발각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만행사건은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그런가하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두고 남조선에서는 류명환과 같이 상대방의 선의를 우롱하는 오만무례한 언동들이 지속되고있다.

남측은 공화국의 아량과 노력에 대해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신뢰는 어느 일방의 기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북남대화를 정략적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하면서 신뢰를 운운하는것은 위선이다.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자면 남조선에서 마땅히 동족대결정책이 철회되여야 한다.

민족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류명환따위와 같은 어중이떠중이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정학준

전쟁도발의 범죄는 감출수 없다

남조선의 도처에서 그 무슨 《승전을 기념》한다는 어리석은 광대극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 남조선교육부가 《6.25전쟁도발주체에 대한 바른 인식교육강화》라는 공문이라는것을 모든 초, 중, 고등학교들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조선전쟁이 《북의 침략》에 의한것이라는것을 정확히 《인식》시키라는것이 바로 이 공문의 내용이라고 한다.

문제는 공문이 《력사인식을 바로잡으라》는 현 남조선당국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은 후에 작성되였다는것이다.

전쟁도발의 주범으로서의 죄과를 숨기고 력사를 외곡하려는 불순한 목적아래 벌어지는 공문배포놀음이 아닐수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일어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사촉하에 당시 남조선의 리승만《정권》에 의해 발발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알려진 일부 자료만 보아도 리승만은 1949년 10월에 공개적으로 《남북의 분렬은 전쟁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북을 점령하여야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고 뇌까렸다. 또 당시 국방장관을 하였던 신성모도 《우리 국군은… 어느때라도 명령만 있으면 이북의 평양, 원산까지라도 1일내에 완전히 점령할 자신과 실력이 있다.》고 호통쳤다.

이미 1949년에 《북벌》계획을 작성한 미국은 1950년 6월 전쟁상인 덜레스를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남조선을 행각한 덜레스는 미군사고문단성원들과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을 만나 북침작전계획에 대한 최종검토를 하고나서 《나는 이번에 북진준비상태를 직접 보고 준비에서 부족점이 없다면 곧 북진을 단행하라는 트루맨대통령의 명령을 가지고왔다. 와서 보니 준비는 만족하다. …준비가 된 이상 북진을 하루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떠벌이였다.

결국 미국의 전쟁사촉과 대대적인 군사적지원, 전쟁준비에 대한 최종검토와 도발지령에 따라 리승만《정권》은 1950년 6월 25일 청소한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삼천리를 불바다로 만들고 온 민족에게 재난을 들씌웠다.

진실은 이러할진대 조선전쟁을 북에 의한 《남침》으로 날조하고있으니 력사에 대한 파렴치한 외곡이고 엄중한 대결망동인것이다.

옳바른 후대교육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적사업이다.

특히 오래동안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은 응당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 지향되여야 한다. 그런데 미래의 통일조국에서 살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심어주기는 고사하고 동족을 《침략자》로 여기라고 내놓고 내리먹이고있으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한피줄을 나눈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주입시켜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의 앞장에 내세우자는것이 이번 공문놀음의 진속이다.

대화와 협력,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열망에 도전하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력사외곡책동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력사를 날조하며 동족대결에 매달릴수록 차례질것은 민족과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것을 남조선당국은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

《승전》인가, 패전인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정전협정 60년이 되는 7월 27일을 계기로 그 무슨 기념행사를 요란하게 벌리려 하고있다.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군악연주회, 마라손대회, 국제토론회, 워싱톤에서의 기념행사, 추모조형물건립 등 각종 광대놀음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세계면전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의 력사를 지워버리고 수치스러운 패배자의 정체를 가리우려 하고있다.

세상에 전쟁에서 패한것을 두고 교훈을 찾는 나라나 군대는 있어도 그것을 《승리》로 둔갑시켜 기념하는 나라는 아마 미국과 남조선뿐일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별의별 광대극을 다 연출하여도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패배자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리승만《정권》을 부추겨 조선전쟁을 일으켰다.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전조선을 타고앉기 위한 조선전쟁을 도발하면서 미국은 72시간에 《조선전쟁을 결속지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며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방대한 륙해공군무력과 남조선군,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동원하여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전쟁을 3일이 아니라 3년이상 치르고서도 력사상 체험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고 세계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미군 40만 5 000여명을 포함한 156만 7 000여명을 살상포로당하고 1만 2 200여대의 비행기, 3 250여대의 땅크 및 장갑차, 1만 3 000여대의 자동차, 560여척의 함선, 7 690여문의 포, 92만 5 150여정의 저격무기 등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자재들을 잃었다.

미국신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선전쟁에서의 《미군의 손실은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전쟁, 메히꼬전쟁, 미에(미국—에스빠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라고 썼다.

1953년 7월 27일 패자의 몰골로 정전협정문건에 조인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고 고백하였다.

조선전쟁에서의 공화국의 승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버리고 미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 정치군사적사변이였다.

그런데도 미국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싶게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별의별 광대놀음을 판이 크게 벌려놓으려는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해괴망측한 노릇이다.

그것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저들의 쓰디쓴 참패의 진상을 오도하여 수치를 모면하고 국제적범위에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여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속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불속에 타죽을것은 그들자신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에 력사상 첫 참패를 안겨주었다면 제2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력사적종말을 가져다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보원해체는 민심의 요구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심판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매일과 같이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각계층의 시국선언과 초불시위들이 이어지고있으며 지어 미국과 카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동포들이 살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까지 《〈국정원〉해체, 〈국정원〉이 만든 현 〈정권〉퇴진》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15일에도 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초불시위를 벌리였다.

남조선정치권에서도 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일정에 올라있는 가운데 정보원을 시급히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8일 현 남조선당국자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국정원〉은 과거 〈정권〉에서부터 많은 론쟁의 대상이 되여왔으므로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느니,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기능과 싸이버테로대응, 경제안보강화에 전념하도록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여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파멸의 벼랑끝에 있는 정보원이 살아나자면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소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래 이 문제로 말하면 지난 6월 중순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이 터지고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이 구속된것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온것이다.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자는 이때까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극구 외면해왔었다.

이런 그가 갑자기 《정보원개혁》문제를 직접 거론한것은 무엇때문인가.

다 아는것처럼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정보원이 심리전요원들을 동원하여 야당후보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작, 류포시킴으로써 현 남조선당국자의 집권에 도움을 준 사건이다. 정보원이라는 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보수《정권》연장에 가담한 특대형정치사기행위를 벌린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이 아니라 현 당국자의 당선을 위한 전, 현 《정권》의 정치적음모, 권력탈취범죄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였으며 이것은 각계층의 분노한 반《정부》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현 남조선당국자는 자기의 이른바 《결백성》을 립증하고 격노한 민심의 이목을 눅잦히기 위해 《정보원개혁》을 운운할수밖에 없게 된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자가 《정보원개혁》을 떠드는데는 제나름대로의 타산도 깔려있다.

1961년 《유신》독재자에 의해 《중앙정보부》라는 간판을 달고 세상에 나온 때부터 정보원은 대북정탐모략활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한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을 탄압해온것으로 악명을 떨치였다. 지난 시기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이 《간첩》이라는 루명을 쓰고 처형당한 사건들에는 어김없이 정보원이 개입되여있다.

이번에도 정보원은 저들이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각계층의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자 그로부터의 출로를 이른바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진실공방에서 찾고 지난 2007년에 있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전격공개하는 추태를 부렸다.

여기에는 북남대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남조선에서 또 한차례의 동족대결광란을 일으켜보려는 흉악한 속심이 깔려있다.

가장 신성시되여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을 공개한것은 이전 《유신》독재시기 악명을 떨친 《중앙정보부》의 죄악을 릉가하는 특대형범죄행위로서 현 《정권》의 묵인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남조선당국은 《정보원개혁》이라는 구호밑에 민심의 규탄대상이 된 정보원을 살려 대결적인 《대북정책》실현에 적극 써먹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정보원개혁》이라는것이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유치한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이 요구하는것은 정보원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요구를 똑바로 알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파쑈와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정보원을 지체없이 해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권력강탈의 도구—정보원

《요즘 정보원은 직접 〈대통령〉을 만듭니다.》, 《정보원에 랍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개혁이 아닌 즉각 해체를 요구합니다.》

최근 남녘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 《정보원정치개입규탄 반〈정부〉초불집회》장들마다에서 들을수 있는 격노한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그만큼 남조선민심은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을 《정권》강탈을 목적으로 한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쿠데타, 모략과 정치적음모가 살판친 특대형범죄로 보고있으며 그것으로 덕을 본 현 《정권》에 시선을 모으고있다.

리유는 충분하다. 최근 더욱 선명해진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수 있다.

지난해 《대선》을 며칠앞두고 《정보원녀직원대글의혹사건》이 터졌던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던 정보원의 이 선거개입의혹사건이 12월 16일 밤 11시 《정보원 녀직원의 대선관련대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로 《정보원녀직원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되여버린것이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이튿날 《2박 3일동안 감금당하고 고생한 젊은 녀직원만 불쌍하게 됐다.》고 떠들어대였다.

결국 《대선》정세는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번져갔고 현 《정권》의 출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대선》결과가 불과 3.6%의 득표률차이로 승부를 가르었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정보원 녀직원의 대글관련사건》이 관건적인 작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이 하나둘 폭로됨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2013년 1월 31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정보원 녀직원이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의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91건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보원의 《대선》개입협의를 뒤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련이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였던 김용판의 지시에 따라 경찰측은 이 사건의 실마리로 되는 근 80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대폭축소하다 못해 자료삭제기술까지 리용하여 증거자료들을 콤퓨터에서 지워버렸다. 《대선》시 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는 바로 이에 토대하여 발표된것이였다. 보여주는것처럼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시켜 근본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보수《정권》을 연장하고 나아가 《유신》독재부활을 노린 정치깡패행위로 특징지어지는것이 바로 이번 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이다.

따지고보면 남조선에서 정보원은 《선거》때마다 개입하여 갖은 권모술수로 보수《정권》유지와 재집권을 위한 모략극을 꾸며왔다.

지난 7대 《대통령선거》과정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당시 정보원의 조상인 《중앙정보부》의 깡패들은 야당의 주요인사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집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자동차충돌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였는가 하면 매일과 같이 전화와 편지로 《정계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너의 집과 차고를 폭파시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뿐만아니라 야권무력화와 정치적적수에 대한 흑색모략선전과 교묘한 여론조작, 심리조작, 지어 여권후보의 당선조작을 위한 잔인한 살인폭력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유신》독재자는 《중앙정보부》를 도구로 삼아 7대《대통령선거》에서 권력을 강탈하였다.

그후에도 정보원을 리용한 보수깡패들의 권력강탈범죄는 계속되였다. 《중앙정보부》를 계승한 《안기부》가 권력강탈을 위해 조작한 《북풍》, 《안풍》사건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보여주는것처럼 정보원은 파쑈독재유지연장을 위한 파수군이고 민주민권의 교살자이다. 하기에 이러한 정보원을 두고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는 권력강탈의 하수인으로 락인하면서 그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오늘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싼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이 광범한 민중의 초불시위로 번져지고 그 화살이 현 《정권》을 겨냥하게 되자 바빠맞은 집권세력은 여론의 시선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한다, 《정보원의 자체개혁》을 주장한다 하며 요술을 피우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있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보수《정권》을 연장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정보원이나 그 배후세력은 력사와 인민들의 증오의 심판을 결코 피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정보원을 규탄하는 대규모 초불투쟁 전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각계층 군중 2만 3 000여명 참가

남조선의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원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의 주최로 13일 서울광장에서 정보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초불투쟁이 전개되였다.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시민들,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2만 3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국민의 규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남북수뇌상봉담화록공개에 대해 정당화하는 등 정치개입을 계속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이 선거개입뿐아니라 지난 5년간 법원과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정치인, 로조원, 시민사회단체 등 가림없이 사찰을 감행했다고 단죄하였다.

이번에 밝혀진 정보원의 선거개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조선에서의 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보원 원장을 즉시 파면시키고 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광주에서 초불투쟁 전개

12일 남조선의 광주 충장로에서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을 규탄하는 3차 초불집회가 있었다.

수많은 광주시민들과 로동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민주화를 유린하고 부정선거, 정치공작을 일삼았다고 단죄하였다.

정보원의 행위에 남조선국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도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알고보니 박근혜는 정보원이 뽑은 대통령이였다.》고 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초불의 힘으로 현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강조하였다.

불법선거에 대해 집권자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을 뒤흔드는 《4대강》사기극

최근 남조선에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혈세가 들어간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를 위한 사기극이라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여 각계의 론난이 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2007년 17대《대통령선거》때 리명박은 《한반도대운하》계획이라는것을 자기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조선반도에 운하를 판다는것은 실리에 맞지 않으며 생태환경과 력사유적을 파괴한다는 사회 각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리명박은 2008년말 스스로가 이를 포기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그후 리명박은 환경오염과 큰물피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한강, 락동강, 금강, 영산강의 바닥을 파내고 일정한 구간마다 수문을 건설하며 강주변에 제방을 쌓는 《4대강정비사업》이라는것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번 남조선감사원의 조사결과 리명박은 간판을 《4대강정비》로 달았지만 실지 내용적으로는 《한반도대운하》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도 《4대강정비》에 드는 123억US$가 아니라 《대운하》건설에 드는 162억US$를 지출하도록 하여 39억US$나 더 탕진하도록 했다는것이다.

그뿐아니라 《한반도대운하》건설에 참가하기로 하였던 대기업들을 그대로 《4대강정비》에 참가시키고 건설과정의 불법행위들을 눈감아준 대가로 많은 부패자금도 꿀꺽했다는것이다.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남조선의 야당과 각계층 인민들은 지난 5년간 리명박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여온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하면서 리명박을 처벌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대하는 현 남조선당국과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조사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홍보수석비서관을 내세워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다,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공식립장》을 《표명》하였으며 《새누리당》도 덩달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떠들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집권당국과 《새누리당》의 능란한 사기협잡술과 정치간상배로서의 진모가 또다시 드러나고있다고 하면서 쓴웃음을 짓고있다.

말은 바른대로 리명박이 《대운하》건설과 《4대강정비》를 꺼내들었을 때 좋다고 하며 적극 맞장구친것이 누구들이였던가.

바로 현 남조선당국자와 《새누리당》이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현 남조선당국자는 2010년 리명박을 만나 《4대강사업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새누리당》도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련속 막대한 《4대강사업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지금에 와서 마치도 저들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없는것처럼 아닌보살하고있으니 이야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철면피한짓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언론들이 《4대강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민사기극과 비리백화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감언리설과 권모술수를 써도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범죄적인 《4대강사업》을 공모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명금룡

남조선언론의 도덕적위기

지난해 《통일신보》에 나는 북부조국의 실체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어본 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기고한적이 있었다. 아마 이번에는 북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또다시 나에게 펜을 쥐게 한것 같다.

최근에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일본 《아사히신붕》의 보도를 되받아외우면서 일본해안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훼손되지 않게 정성껏 모신 통을 가슴에 품고 발견된 공화국선원들의 시신에 대하여 《북에서는 재해시 초상화를 갖고나오지 않으면 강제수용소로 보내진다.》느니, 《북선원시신에서 초상화가 발견된것도 자신과 가족들이 처벌받을것을 우려했기때문》이라느니 하고 험담을 쏟아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기사를 낸 《련합뉴스》나 그렇게 하도록 비호, 독려한 남쪽의 보수세력들이나 거짓외에는 달리 살길이 없는 가련한 존재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할수 있었다.

무슨 근거에서 나의 주장이 가능한가. 무엇보다 먼저 세상사람들의 보편적인식과 거리가 한참 먼 《련합뉴스》의 반북선전방식이 그렇다. 그들의 북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은 일종의 《불치의 병》에 가까운것이라 해야겠다.

60년에 걸치는 북미대결에서 북이 승리해올수 있은 비결이 령도자와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친 힘에 있다는 자타의 평가가 그들에게 안보이는것도 북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때문일것이다. 정상적사고, 상식, 보편과 거리가 먼 상상을 초월하는 억지주장들을 날조하는 보수언론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아연함을 경험한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객관적사고능력, 민족의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기 어려운, 하여 거의 유아수준으로 보이는 저렬한 의식수준이 오늘 남쪽보수언론의 핵심문제다.

남의 보수언론, 지어 중도언론들까지도 왜서 반북선전에 그렇게도 재미를 느끼며 거짓말을 람발하는것일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반복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거짓으로 세계사를 《풍미》했던 도이췰란드 겝벨스의 말이다. 이 거짓선전술은 모든 불의한 독재자들, 식민주의제국주의세력들, 특히 자기 하나의 안락과 돈밖에 모르는 자본의 노예들, 거짓을 팔아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어용나팔수들이 일관하게 사용하는 장사술이다. 사람의 눈과 판단을 속여 더 많은 리윤을 창출하기 위한 변신술이기도 하다.

거짓의 목적은 상대를 속이는것이다. 무슨 방법으로든 거짓말하는자에게 있어 수단은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겝벨스의 훈계를 불의한 통치와 지배, 민족의 영구분렬과 반북모략선전에 활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고로 거짓은 약한자의 유일한 수단으로 되여왔다. 당당하지 못하거나 힘이 딸릴 때 거짓에 의거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거짓은 약자의 위안거리는 될수 있어도 약자를 강자로 둔갑시켜주는 요술막대기로는 될수 없다.

그럼 왜 북인민들은 위험한 정황속에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령도자의 초상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걸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다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기때문일것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운명공동체라는 말조차 모른다. 오직 자기 개인의 운명, 돈과 권력의 추구, 경쟁과 승리, 정복과 지배의 론리만이 존재할뿐이다.

그러나 북은 다르다. 인간이 자기 생명을 준 부모를 위하듯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준 령도자와 고마운 사회를 위해 지어 자기 목숨도 서슴지 않고 바치려는것이 북인민들의 인생관이라 할수 있다.

강권과 강압으로는 결코 이북인민들처럼 그렇게 강의하고 순진무구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을 창조해낼수 없다.

그런데도 북의 혼연일체를 강권과 강압에 의한 순종으로 인식하여야만 하겠는가.

강압에 의한 복종이 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서유럽의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의 어머니는 력사》라고 단언한다. 또 력사적교훈을 존중하는 중국의 전통적문장학에서는 《옛일을 말하면서 오늘의 시사문제를 평론한다.》는 이른바 《담고론금》(談古論今)을 주장한다. 하다면 고금동서에 이름을 남긴 군주들중에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중에 강권으로 백성을 순종시켜 번영을 이룩한 나라가 있는가? 진시황은 혼란과 란맥속의 시대환경에서 강권을 발동하여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한 중국문화권 최초의 통일제국 창건자다. 그러나 그 강권으로 얻은 강대성은 허상이였고 사상루각이였다.

재미동포 정기렬교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영결식행사를 취재하고나서 《자신들 최고지도자의 서거를 그리도 슬퍼하며 추모했던 북녘동포들의 모습은 〈한국〉, 일본, 미국을 필두로 세상주류언론매체들의 북에 대한 온갖 악담, 음모, 시기, 거짓증언, 악마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세상의 또 다른 부류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북에 대해 전혀 새롭게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는가 하면 또한 도저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현실앞에서 북녘사람들의 가늠키 어려운 슬픔과 아픔의 깊이를 리해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게 만들기도 했던것 같다.》고 했다.

주지하는바 그때에도 《조》, 《중》, 《동》을 비롯한 남의 보수언론들은 《추도행사시 울지 않은 주민들을 수용소에 보냈다.》는 식으로 반북모략을 제창했다. 이번의 《련합뉴스》가 보여준 반북선전방식과 신통히 닮은 꼴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숨을 곳이 없다고 했다. 물론 그들에겐 북인민들의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과 맑은 정신세계를 결코 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틀자체가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초보적으로 갖추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도덕적리성이 아닐가 한다. 도덕을 떠나 인간의 존재와 가치, 삶과 행복을 론할수 있겠는가.

한민족으로서 령도자와 인민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낄 대신 폄하부정하고 시기모독하는 이런 저렬한 행위는 오늘 남조선보수언론의 도덕적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례라 할수 있겠다.

력사는 거짓으로 씌여진적 없으며 거짓이 진리를 타승한 례를 기록한적도 없다.

남의 보수언론들이 입을 모아 아무리 북에 대한 거짓선전에 열을 올려도 그것은 결국 세상에 대고 북의 진리, 진실만을 말해주는 효과를 줄것이다.

오늘 북인민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애국충정을 다하고있다. 북은 오늘도 굳건히 서있으며 날을 따라 더 강해지고 높은 과학기술적진보도 거두고있다. 미국의 끊임없는 군사적위협속에서도 자립적국방공업에 기초한 첨단급의 핵과 미싸일억제력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당당히 대응할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섰다. 이런 기적의 근저에는 바로 북유일의 무기인 혼연일체가 있는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온 나라가 한가정이 된 불가사의한 나라 조선. 오직 자기 령수,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진실한 마음들이, 그런 하나와 같은 마음들이 조선의 진짜힘이고 진짜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강대함이다. 이를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세계를 도저히 리해할수도 없는 이들이 아무리 헐뜯고 모략중상한다 해도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으로 뭉치고 정으로 뉴대를 이은 북의 혼연일체의 성벽은 영영 허물수 없으며 이것이 있어 북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부언하고싶다.

재미동포 김미령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시의 력사유적들

왕 건 왕 릉

황해북도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고려의 태조왕인 왕건(877~943)의 무덤이다. 왕건왕릉은 송악산의 가지줄기가 뻗어내려온 만수산의 나지막한 등성이우에 자리잡고있다. 릉문앞의 한 옆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이 새겨진 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가 세워져있다. 무덤무지의 높이는 8m이며 병풍돌의 대각직경은 19m이다. 웅장하게 개건된 왕건왕릉은 통일국가 건설의 력사를 전하는 귀중한 유적으로 되고있다.

고 려 성 균 관

개성시 방직동에 있던 고려시기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992년에 세워진 고려성균관은 부지가 약 1만㎡로서 동재, 서재, 명륜당, 동무, 계성사 등 당시의 건축술을 자랑하는 18동의 건축물이 있다. 고려성균관은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옛 건물들중에서 규모가 크고 구조가 째인 건물로 알려져있다.

공 민 왕 릉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이다. 공민왕릉은 현릉(공민왕의 무덤)과 정릉(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쌍무덤으로서 무덤구역은 장방형의 세 층단과 그 아래에 넓은 층단으로 이루어졌다. 현릉과 정릉은 제1층단 가운데에 있다. 무덤무지의 높이는 약 6.5m이다. 공민왕릉의 무덤형식은 고려말기의 릉형식을 대표하고있다.

개 성 성

고려의 수도성으로서 지금의 개성시내와 주변의 산들에 이어져있다. 개성성은 궁성, 황성, 외성, 내성으로 되여있었다. 현재 남아있는것은 외성과 내성, 발어참성의 일부이다. 외성은 1009~1029년에 쌓은 성으로서 수도전체를 둘러싸고있었으며 내성은 고려말에 궁성과 황성을 포함하는 외성안의 일부지역을 둘러싸도록 쌓아졌다. 발어참성은 고려성립이전인 896년에 축조되였다.

숭 양 서 원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서원이다. 고려말기의 재상이였던 정몽주가 살던 집자리에 처음 세웠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 지었다. 숭양서원은 본래의 사명인 교육과 함께 유교를 선전보급하는 장소로 리용되였다.

표 충 비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표충비는 고려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켜 피살된 정몽주를 찬양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세운것이다. 두 비석은 같은 짜임새인데 바닥돌, 거부기받침과 비몸, 비머리로 이루어졌다. 표충비의 바닥돌은 널직한 대돌로 만들고 거부기받침은 10t이 넘는 통돌로 거부기조각을 하였다. 비문은 왕이 썼다는 시, 비석을 세우게 된 동기 등 정몽주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선 죽 교

개성시 선죽동의 로계천에 놓여있는 고려시기의 돌다리이다.

길이 8.35m, 너비 3.36m인 선죽교의 본래 이름은 선지교였는데 정몽주가 피살된 후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돋아났다고 하여 선죽교라고 고쳐불렀다. 1780년에 선죽교우에 돌란간을 돌리고 그옆에 새로 돌다리를 놓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

개 성 남 대 문

개성시 북안동에 위치하고있는 고려시기 개성성 내성의 남문이다.

개성남대문은 화강석을 곱게 다듬어 쌓은 장방형평면의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우에는 적을 쏠수 있게 성가퀴를 돌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쏘는 구멍을 뚫어놓았다.

축대의 복판에는 무지개문길을 냈다. 개성남대문의 문루에는 유명한 연복사종이 있다.

개 성 첨 성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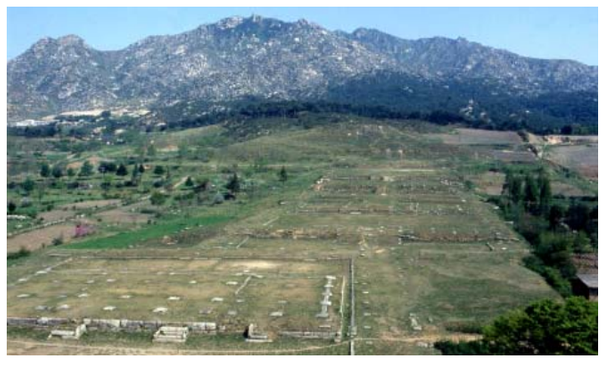
고려시기 천문기상관측을 진행하던 시설물이다. 옛 기록에는 고려첨성대를 언제 설치하였다는 자료가 없지만 고려초기부터 천문관측부서와 관측에 대한 자료가 있는것으로 보아 고려초시기인 919년경에 건설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고려사》(1451년)의 천문지에는 일식, 월식, 혜성, 류성, 태양흑점에 대한 관측기록이 수많이 남아있다. 고려국가의 멸망과 함께 첨성대는 기능을 상실하고 내버려져 오늘은 축대만 남아있다.

명 릉 떼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무덤떼이다. 명릉떼는 고려 29대 충목왕(1345~1348년)의 무덤인 명릉과 그 주변의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은 2기의 무덤으로 되여있다. 명릉은 평천정을 한 외칸무덤으로서 판돌로 만든 무덤칸벽면과 천정에는 벽화와 별그림이 그려져있다. 명릉떼는 고려왕궁 석조물들의 배치와 무덤칸의 구조에서 고려시기 무덤제사의 변천과정을 알수 있게 한다.

만 월 대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고려시기의 왕궁터이다. 고려왕궁은 면적이 125만㎡로서 왕궁의 지위에 어울리게 웅장화려하게 건설되였다. 당시 고려왕궁은 기본축을 형성하고 그 좌우에 기타 건물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하던 다른 나라들의 왕궁설계의 도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연지세를 파괴하지 않는 원칙에서 평탄한 곳이 아니라 자연지면우에 그대로 건설하였다. 고려왕궁터—만월대는 고려시기 우리 겨레의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칠 릉 떼

개성시 해선리 만수산기슭에 떼지어있는 일곱개의 고려시기 무덤이다. 무덤의 주인공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무덤의 규모와 짜임새, 유물 등으로 보아 고려말기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무덤으로 인정되고있다. 일곱개의 무덤들은 하나의 골짜기를 끼고 산릉선우에 나란히 놓여있다.

대담

더욱 빛을 뿌리는 고려 500년사

지난 6월 23일 캄보쟈의 프놈 뻰에서 열린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에 대한 유산등록이 결정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명철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유적처 부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에는 어떤 대상들이 속하는가?

최 명 철: 개성시에 있는 왕건왕릉과 공민왕릉, 개성남대문, 개성성, 숭양서원, 표충비, 선죽교, 고려성균관, 만월대, 개성첨성대, 칠릉떼(7기), 명릉떼(3기) 이렇게 모두 12개 대상의 20개 유적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였다.

기 자: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지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최 명 철: 조선반도 중부 서해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있는 개성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918~1392년)의 수도로 있었다. 원래 개성은 변방의 자그마한 고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수도로 정한 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기 개성은 불교의 중심지로 되였다. 수십개의 절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탑이 숲을 이루었는데 어떤 절들은 규모가 수천간에 달하여 왕궁을 릉가하기도 하였다.

당시 개성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상업도시이기도 했다. 고려의 이름난 청자기, 비단, 종이, 부채, 인삼 등이 송나라, 일본 지어 아라비아상인들에 의해 세계각지로 퍼져나갔다. 국제무역항이였던 례성강하구의 벽란도에는 언제나 외국상선들이 가득차있었다.

그후 조선봉건왕조가 서고 수도가 서울로 옮겨진 후에도 개성은 여전히 나라의 중요상업도시로,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과학, 문화면에서 수도 다음가는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개성에는 고려시기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들이 수없이 많다.

기 자: 세계유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수 있는가?

최 명 철: 한마디로 특출한 세계적가치(OUV)를 가지는 륙지나 바다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문화 및 자연혼합유산이 있다. 문화유산에는 력사와 예술, 과학적견지에서 특출한 세계적가치를 가지는 건축물이나 기념비적조각, 그림, 고고학적성격을 띠는 요소, 구조물 등이 속한다. 자연유산은 미학적 및 과학적측면에서 독특한 세계적가치를 가지는 천연생물학층이나 자연지역 등을 의미한다. 문화 및 자연혼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요구를 다 같이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유산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은 문화유산에 속한다.

기 자: 개성력사유적들에 대한 유산등록을 결정한 세계유산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최 명 철: 그것을 알자면 먼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세계유산협약(WHC)은 유산의 특출한 세계적가치(OUV)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세계유산의 옳바른 확정과 보호, 보존, 전시를 담보할 목적으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유산보호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유산협약이다.

협약에 의해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유산기금이 설립되여 197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8년 7월에 세계유산협약에 서명하였다.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자기 나라의 문화 및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의를 거쳐 채택된 유산들은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여 국제적인 보호대상으로 되게 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출한 세계적가치를 가지는 유산들을 확정하고 보호, 보존하며 후세에 넘겨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한해에 한번씩 모여 해당 나라에서 추천된 유적들을 평가하고 세계유산등록을 최종결정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미 우리 나라의 고구려벽화무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6월에 있은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에 대한 세계유산등록을 결정하였다.

기 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자면 어떠한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는가?

최 명 철: 한마디로 특출한 세계적가치(OUV)를 가져야 한다. 다시말하여 세계유산실무지도서에 반영된 10가지 세계유산등록기준가운데서 최소한 한개 이상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리 나라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은 10개 조항의 세계유산등록기준가운데서 ⅱ, ⅲ, ⅳ기준에 부합된다고 말할수 있다.

세계유산등록기준 ⅱ, ⅲ, ⅳ에는 해당 유적들이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문화지역안에서 건축물, 기념비적예술 등에 관한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류상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현재 살아있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전통을 독특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력사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학 및 풍경의 특출한 실례가 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성력사유적들은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근 500년간 진행되여온 문화적 및 정치적가치의 중요한 교류상황을 잘 보여주고있다.

당시 고려는 아시아에 널리 퍼지고있던 불교와 유교, 풍수신앙을 받아들여 통치중심지와 도시방어체계, 철학교육기관들, 여러 기념물들, 무덤의 배치와 설계원리들에 구현함으로써 자기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불교를 국가통치리념으로 선포한데 따라 절건설과 불교행사를 장려하였는데 만월대의 33단으로 된 계단과 돌등부재, 절건물터 그리고 공민왕릉과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절터는 고려의 불교적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고려시기에 성행하였던 풍수신앙은 국가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수도 및 풍경설계를 낳게 했다. 개성의 도시와 왕궁설계, 무덤이나 건축물들의 위치와 주위풍경은 풍수의 영향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또한 개성력사유적들은 수도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고려문화가운데서 가장 뛰여날뿐아니라 고려문화의 전통과 특성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국가의 통치중심인 왕궁터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성, 국가인재의 최고양성기관과 사립교육기관, 천문관측소, 왕릉들 등 다양한 유산들은 고려문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대표하고있다.

개성의 도시설계와 왕궁, 왕릉들의 배치는 고려시기 다른 지역의 본보기로 되였을뿐아니라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도시와 왕궁설계, 무덤건축에로 이어져 천년간에 걸치는 조선반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근 500년동안 존재해온 고려의 력사와 문화를 증명해주는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그 력사문화적가치가 국제적으로 공인되게 되였다.

기 자: 현재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의 보존상태는 어떠한가.

최 명 철: 한마디로 좋다. 왕궁터가 손상없이 보존되고있으며 개성성도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충분한 크기와 구성요소들을 유지하고있다. 고려성균관과 숭양서원, 선죽교, 표충비, 왕릉들도 본래의 건축형식과 배치원칙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유적주변의 환경보호도 잘되고있으며 자연풍화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도 적극 세우고있다.

기 자: 개성력사유적들외에도 우리 나라에는 세계유산으로 될만 한 대상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최 명 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아름다운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는 특출한 세계적가치를 가지는 문화 및 자연유산, 혼합유산들이 많다. 실례로 평양시의 력사유적들과 천하절승 금강산과 묘향산, 칠보산의 유적들을 들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온 나라의 력사유적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등록하고 국가적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해나가겠다.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정의의 전쟁이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관한 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체102(2013)년 7월 26일

홈페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천지의 맑고 푸른 물

조선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승인 백두산천지. 백두산천지의 경치는 장쾌한 백두산악 못지 않게 신비하면서도 우아함을 자아낸다.

맑은 천지물속을 들여다보느라면 이처럼 깨끗한 물이 또 있으랴 하는 감흥에 절로 휩싸인다.

백두산천지의 물은 참으로 맑다. 천지에서 아흔아홉명의 선녀가 미역을 감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이 맑고 푸른 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바람 한점없이 잔잔한 날 배를 타고 천지한복판에 들어가 물속을 들여다보면 푸른 하늘을 떠이고 솟은 무수한 봉우리들과 호반의 천태만상이 비껴 실체처럼 안겨온다.

그런가하면 천지상공으로 흰구름떼들이 자유로이 떠돌 때 그것이 물속에서 피여오르는것인지 하늘에 떠돌던 구름이 물속에 내려앉는것인지 또 천지물면이 실지 어디이고 어디서부터 하늘이 시작되는지 쉬이 분간할수 없다.

천지물의 색갈 역시 아름답기 그지없다. 천지물은 계절에 따라 색갈이 약간씩 변화되는데 6월부터 8월까지는 해비침조건이 좋은 날에 초록색을 띠며 9월과 10월에는 보다 진한 초록색을 띤다.

그리고 흐린 날에는 검푸른색을 띤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이런 때 천지의 물색을 보고 《흑수》라고도 불렀다.

천지물의 맑음도는 여름철에 14m이며 9~11월에는 15~16m에 달한다. 천지의 물은 맑음도가 여느 강에 비해 5배에 달한다.

천지물이 이처럼 맑은것은 집수구역의 수문지질조건과 화학적조성에 관계된다.

천지물에는 사람의 몸에 필요한 여러가지 미량원소가 다 포함되여있으며 해로운 질소화합물이 전혀 없다. 광물질총량이 약 340ppm인 천지물속에는 수소탄산이온, 칼시움, 마그네시움, 칼리움, 나트리움 등이 알맞춤하게 들어있다.

천지물은 위생학적으로도 깨끗하며 그 물맛이 대단히 좋다. 언제나 차고 시원해서 좋으며 한번 마시면 또 마시고싶을 정도로 독특한 맛을 가지고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사람들도 천지물을 마셔보고는 그 맛이 너무 좋아 엄지손가락을 내흔들군 한다.

이렇듯 백두산천지물은 세계의 명산 백두산의 절경을 한껏 돋구며 겨레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대장 박사 최근섭

난치병치료에 효과가 큰 고려약

《류마토이드로 오래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엄나무신경통알약을 쓰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였다.》, 《난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엄나무신경통알약을 써보라.》…

평양특산약물식품개발소에서 개발한 엄나무신경통알약이 난치성질병치료에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관심을 모으고있다.

일명 《뼈암》이라고도 불리우는 류마토이드는 손과 발, 다리, 어깨, 척추, 전신관절이 붓거나 쏘면서 변형, 강직이 오는 악성질병이다. 자료에 의하면 류마토이드질병은 세계인구의 1% 즉 100명당 한명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류마토이드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데 있다. 다만 아픔을 멈추기 위한 증상치료로 만족하고있을뿐이다.

엄나무신경통알약은 세계적으로 고치기 힘든것으로 알려진 류마토이드악성질병치료에 효과가 큰 약으로 인정되고있다.

엄나무신경통알약을 개발한 평양특산약물식품개발소의 리정재박사는 《근원적인 치료대책이 없는 류마토이드와 같은 악성질병치료에서 엄나무신경통알약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엄나무신경통알약은 인체의 식물신경조절기능장애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좌골신경통, 허리아픔, 전신신경통, 심장신경증, 신경성고혈압과 신경성위병, 가슴앓이 등 40여가지의 난치성질병을 치료할수 있다고 한다.

몸안에 쌓인 산화페설물에 의해 생긴 질병들을 낫게 해주는것도 또 다른 우점이다. 사람의 몸안에 생긴 산화페설물이 피부에 축적되면 세포가 쭈그러들고 잔주름, 건반점이 생기고 피줄벽에 붙으면 동맥경화와 뇌혈전이 생기며 관절액에 스며들면 류마치스를 앓고 세포유전자를 해치면 암과 같은 불치병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 약은 건강장수의 주되는 적인 산화페설물을 배설시켜 그로 인한 난치성질병들을 낫게 한다.

척추가 휘여 걷지 못하던 환자가 씨엉씨엉 걸어다니게 하는 비결도 이 약에 들어있다. 척추나 뼈, 관절부위에 혹이나 삭뼈와 같은 이성체가 생기면 신경을 압박하여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경우 수술적방법으로도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약을 쓰면 이성체들이 분해되여 없어진다. 휘였던 척추가 곧추 서는것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기하다고 말하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난치병치료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이 약은 개발되자마자 내외의 큰 인기를 모으고있다. 지난 2008년 9월 중국 대련에서 열린 국제특허기술 및 제품전람회에서 엄나무신경통알약에 특별상인 금상과 우수제품상을 수여한것도 그 한 실례이다. 오늘 평양특산약물식품개발소앞으로는 엄나무신경통알약에 의해 사경에서 구원되였거나 생의 활력을 되찾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편지가 매일같이 날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여름철민속명절 류두와 관련된 풍습

동류두목욕

류두는 음력 6월 15일에 해당하는 날로서 이날에 우리 선조들은 시원한 내가를 찾아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즐겁게 보냈다. 이렇게 하는것을 동류두목욕이라고 하였다.

《류두》란 《동류두목욕》의 준말로서 동쪽의 내가에 나가 몸을 씻는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왜 하필 동쪽에?》 하고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해솟는 동쪽을 밝고 양기가 왕성한 방향으로 여겨오던 관념과 관련된다.

이날에 녀성들은 늪이나 진펄, 개울기슭에서 자라는 창포잎과 뿌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창포에는 향기름이 있어서 그 물에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나고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 누구나 그렇게 하였다.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삼아 머리에 질러 치장하기도 하였다.

류두는 고구려, 신라에서도 널리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것이 퍽 오랜 풍습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농사의 큰 한공정을 마치고 다음단계의 농사일로 넘어가기에 앞서 하루를 푹 쉬면서 몸을 깨끗이 씻는 풍습에는 늘 깨끗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감정이 반영되여있다.

류두날 명절음식

류두날 우리 선조들은 흐르는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몸이 거뜬해진다음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놀았다. 이것을 류두잔치라고 하였다.

류두날의 명절음식으로 첫째로 꼽은것은 어죽이였다. 평양지방에서는 대동강에서 목욕하고나서 대동강의 가막조개와 물고기를 한데 넣고 쌀도 조금 두어 어죽을 쑤어 먹었는데 그것이 천하의 별미였다. 동해안지방에서는 바다물고기와 섭조개로 어죽을 쑤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독특한 맛이 있었다.

류두날 목욕하고나서 서늘한 그늘에 앉아 참외를 먹는것도 하나의 풍습이였다. 류두를 전후하여 여러가지 햇과일이 나오므로 여름철 열매과일을 골고루 맛볼수 있는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날에 류두면도 인기있었다. 류두때가 되면 햇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루내여 만들어 먹는 국수를 류두면이라고 하였다. 반죽한것을 국수분틀로 눌러 실국수를 뽑거나 칼로 잘게 썰어서 칼국수를 만드는데 그것을 시원한 콩국에 말아먹으면 무더운 여름철음식으로서 이보다 더 맛있는것이 있을 상싶지 않다.

수단, 건단, 련병도 중요한 명절음식이였으며 이날에 쉬움떡과 설기떡도 만들고 앵두를 꿀물에 탄 앵두화채도 더위를 물리치는 철음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올해의 류두는 7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조선치마저고리의 단정한 멋을 살리려면

① 치마를 잘 입어야 한다.

치마에서는 치마허리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치마조끼의 길이는 저고리보다 짧게 하여 저고리 밑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치마조끼의 품을 너무 좁게 하면 답답할뿐아니라 도련이 들리고 저고리에 구김살이 생기며 단정한 맛이 없어진다.

치마의 폭은 2.2~2.5m정도로 하는것이 좋다. 처녀들의 경우에는 길이를 좀 짧게 하고 폭을 넓게 하는것이 더욱 발랄해보인다.

② 저고리를 잘 입어야 한다.

저고리를 자기 몸에 꼭 맞게 만들어 입어야 한다. 저고리가 너무 헐렁하면 앞품에 주름이 생기고 뒤가 들리면서 단정한 맛이 없어지며 반대로 너무 작으면 몸에 끼여 답답해보이고 저고리의 선들이 살아나지 못한다. 저고리를 입을 때 깃선이 바로서야 하며 겉깃과 안깃이 잘 맞고 동정이 반듯하게 맞물려야 한다.

③ 고름을 잘 매야 한다.

조선옷차림에서는 고름이 맵시있게 매여져야 조선옷의 독특하고 단정한 맛이 살아나게 된다.

고름을 맬 때에는 긴 고름이 밑으로 가고 짧은 고름이 우로 오도록 한번 맨 다음 밑의 긴 고름으로 고를 만들어 왼쪽깃머리쪽으로 눕히고 짧은 고름으로 고를 돌려매여 당기면서 고름나비와 매듭을 잘 조절해야 한다.

본사기자

건강5대필수 하루규범

① 하루에 10 000발자국을 남기라.

② 하루 세끼 100번씩 씹어서 삼키라.

③ 하루 1 000글자를 읽으라.

④ 하루 4번 웃으라.

⑤ 하루 좋은 일을 두번 하라.

총체적으로 《만보, 백작, 천자, 4소, 2행》이라고 숙어화되면서 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파급되고있다.

생강을 리용한 병치료방법

• 손발이 찬 녀성은 날마다 식전에 생강차 한잔씩 마시면 효과가 크다.

• 구토증에는 생강 75g과 식초 2홉을 사기그릇에 넣고 끓인 후 자주 복용하면 좋다.

• 각종 식중독에는 생강즙을 내여 소금을 조금 넣어 한잔씩 자주 마시면 풀린다.

• 감기와 기침에는 생강즙 1/2홉에 꿀 한차숟가락을 넣고 약간 데워서 하루에 5번정도 마시면 좋다.

•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에게는 생강차에 술을 약간 타서 먹이면 효과가 있다.

• 이발이 쏠 때 생강을 구워 말려 가루를 내고 백반가루와 섞어 바르면 좋다.

본사기자

유모아

집이 배속으로 들어오다

술을 몹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집을 저당잡히고 술을 사먹고서는 집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오늘은 내가 너를 이기였구나. 어제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있었지만 오늘은 네가 내 배속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단편소설

자기를 찾은 사람 (11)

글 량홍일, 그림 김윤일

자신에 대한 타매만이 속에 무득하니 쌓일뿐이다.

《내가 너에게 죄되는 일을 했구나!》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그게 어찌 아버님의 잘못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찌르르 가슴굽을 긁어내리는것만 같았다.

자기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두사람을 미궁속에 몰아넣은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미욱스럽고 고집스러운 인간을 타매해야 할 대신 이렇게 아량있게 대해주다니…

지근우는 자책감이 어린 눈빛으로 은경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두려움과 후회가 폭풍처럼 휘몰아쳐왔다.

당초에 미국산 소고기를 팔 생각을 하지만 않았어도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게 아닌가. 아들과 은경을 위한다고 시작한 노릇이 결국은 그들을 잡아먹는 망둥이짓으로 되지 않았는가.

《아이, 성수씨!》

은경의 탄성이 울렸다.

드디여 아들이 힘겹게 눈을 떴던것이다.

《아버님이 오셨어요.》

성수의 손이 지근우의 거칠거칠한 손우에 놓였다.

《아버지!》

《오냐…》

진한 눈물이 봉대를 감은 아들의 얼굴우에 한방울두방울 떨어졌다. 안해를 잃고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모진 고생속에서도 남들에게 눈물만은 보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이 죽어라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웠다.

《한생 눈물이란 모르시던 아버지가 오늘 저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군요.》

아들은 손으로 지근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성수야, 내가 너를 이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놈의 소고기만 팔지 않았어도…》

성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니예요. 설사 소고기판매업자들이 모두 미국산 소고기를 팔지 않는다고 해도 이 땅에 쓸어드는 그 썩은 고기는 막을수 없어요. 그래서 전 아버지를 탓하지 않아요.》

지근우는 속에 불뭉치를 안은듯싶었다. 생의 위협을 받고서도 제 애비를 탓하지 않는 아들앞에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자식보다 귀한 보배는 없다고 했는데 그 귀중한 불꽃에 찬물을 끼얹은 내가 무슨 애비란 말인가.

《아니다. 난 너희들과 네 에미앞에 죄를 지은 놈이다. 돈만을 생각하면서 너의 충고에 귀도 기울이지 않은 못된 놈이다.》

은경이 두손으로 지근우의 오른손을 포근하니 감쌌다.

《아닙니다, 아버님! 그건 생을 지향하는 인간들의 요구를 악용하여 미국을 업고 제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사탄의 무리들이 〈정권〉을 잡았기때문이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여직껏 묵인해왔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있는거예요.》

《?!…》

《아버지, 은경씨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린 이 땅을 미국의 오물시장으로 만들어 수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해치면서까지 외세에 비위를 맞추려고 횡포를 부리는 매국 〈정권〉에서 사소한 선의도 바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 생을 구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물론 미래의 운명을 해치는 자살행위나 같은거랍니다.》

비록 새로운 말은 아니였지만 두 젊은이의 말은 지근우의 가슴속에 정대로 쪼아박듯 깊이깊이 새겨졌다.

《아버지, 우리가 살길은 이 남〈한〉땅에 진정으로 민중을 생각하는 정부를 세우는 길이예요.》

지근우는 가물거리던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는듯싶었다. 자신을 눈먼 소로, 떨어지는 채찍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오게 한 그 원흉이 또렷하니 보였다. 아니, 이미전부터 보고있었다. 하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살아온 자기였다. 거기에 가정도, 아들의 장래도 있다고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운명, 가정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올가미라는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얼마나 미련한 이놈인가! 그래, 더는 이렇게 소가 아닌 소로 살수 없다! 이건 제 멱줄을 제손으로 끊는짓이다.

머리속을 치는 생각으로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코뚜레를 잡아끌리운 소처럼 입원실을 나서 걸어갔다.

《아니, 아버님 어데로 가십니까?》

은경이가 의아한 눈길로 따라나섰다.

지근우는 말없이 길을 다 그쳤다. 허리를 구부정하니 하고 발밑만을 보며 걷던 그의 모습이 아니였다. 번쩍 얼굴을 쳐든 모습, 젊음을 되찾은듯 한 활기에 넘친 걸음이였다.

얼마후 별빛 한점없이 흐린 서울밤거리의 한구석에 자리잡은 지근우의 판매소앞에서 한점의 불꽃이 타오르고있었다. 《미국산 소고기를 판매합니다》라고 쓴 안내문이 그의 발밑에서 서서히 재로 변하고있었다.

거리쪽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는 초불시위대오가 흐르고있었다.

은경이가 지근우의 마음을 읽은듯 눈물속에 웃고있었다.

《아버님!》

《얘야, 내 다시는 소처럼 살지 않으련다!》

그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걸음을 옮겼다. 손에서는 초불이 타오르고있었다. 화광에 비친 그의 모습은 바로 어제날의 지근우, 인간소가 아니였다. 바로 새로운 인간으로 태여나 자신은 물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와 같은 숙명적인 운명을 강요한 매국배족적인 《정권》을 갈아엎을 새로운 멍에를 걸머진 한 인간이 힘차게 걸어가고있었다. 가정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생의 불꽃인 초불대오가 점점 가까와지고있었다.

(끝)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